



전북사대부고 1학년 고등 국어 학습지 7

3. 국어와 우리 생활

(3)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

1학년 ()반 ()번 이름:

1. 대화의 원리

1) 협력의 원리

대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협력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에 맞도록 대화해야 한다.

의 격률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 격률	거짓되거나 타당한 증거가 없는 내용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의 격률	대화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의 격률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

◎ 아래 예시에서 어떤 격률이 위배되고 있는지 써봅시다.

대화 예시	위배된 격률
① A: 진수야, 우리 집이 같은 방향인가 봐. 집이 어디니? B: 응. 나는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197-8 미도 아파트 309호에 살아.	
② A: 정윤아, 2차고사 국어 시험 범위 좀 가르쳐 줄래? B: (알고 있으면서) 나도 몰라.	
③ A: 준영아, 이번 방학 때 놀러가고 싶은 데 있어? B: 나 내일 중요한 수행평가가 있어서 오늘 밤을 새야 할 것 같아.	
④ A: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B: 글썄... 난 집에서 좀 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 일도 많고 머리도 아프고 피곤해서 말이야. 그런데 저녁 밥도 먹긴 먹어야 하고.....	
⑤ A: 모둠 숙제 왜 안 해왔어? B: 어제 방과 후 학교 수업 듣느라 시간이 부족했어. A: 그 수업, 학교 공사 때문에 미뤄졌잖아. B: 학교 공사 때문에 너무 시끄럽지 않아? A: 갑자기 왜 뜬소리야?	

☞ 대화 함축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협력의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자신의 발화 의도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A: 초콜릿 먹을래?

B: 나 조금 전에 양치질 했어.

이 대화는 표면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_____의 격률을 어기는 것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는 ‘양치질을 했으니 초콜릿을 (먹겠다 / 먹지 않겠다).’는 의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화 함축은 발화 내용의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화자가 어떤 의도를 암시하거나 함의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의미 해석이 이루어지게 한다.

2) 공손성의 원리

대화할 때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와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공손하고 예절 바른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공손성의 원리라고 한다.

의 격률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표현을 최대화해야 한다.
의 격률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해야 한다.
의 격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해야 한다.
의 격률	화자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해야 한다.
의 격률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다른 점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일치점을 극대화해야 한다.

① 요령의 격률: 상대방의 이익 _____ 부담 _____

<상황> 모둠 발표를 위해 자료 정리를 부탁하는 상황

A: 다음 주에 우리 모둠이 발표해야 하니까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보내 줘.

B: 내가 주말에 이모 댁에 가야 해서 그러는데, 혹시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겠니?

- A: 상대방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_____ 하듯 말하고 있다.
- B: 자신의 _____ 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에게 _____ 을 주는 등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면서 부담을 줄여 표현하고 있다.

⇒ 직접적인 _____ 보다는 _____ 적이고 _____ 한 표현이 상대의 부담을 덜어 주므로 예의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② 관용의 격률: 화자 자신의 이익 _____ 부담 _____

<상황> 발표 준비 과정에서 선생님께 건의를 하는 상황

A: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주신 자료가 너무 어려워서, 이걸로는 못하겠어요. 쉬운 걸로 다시 찾아주세요.

B: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주신 자료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조금 쉬운 자료로 찾아 주실 수 있을까요?

- A: 선생님께서 찾아주신 자료가 너무 어렵다며 _____ 을 탓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 B: 상대를 배려하며 문제의 원인을 _____ 의 탓으로 돌려 표현하고 있다. → 자신의 _____ 을 최대화함.

⇒ 관용의 격률은 _____ 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이 격률에 따르면 자신의 부담이 커질수록,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수록 예의있는 표현이 된다.

③ 칭찬의 격률: 상대방에 대한 칭찬 _____ 비방 _____

<상황> 발표를 한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

A: 어제 발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 발표가 그게 뭐니? 왜 그렇게 떨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B: 어제 발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발표 정말 잘하더라. 이해가 잘 되었어. 조금 떠는 것 같긴 했는데, 너였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만 떨어졌을 거야.

- A: 떨면서 발표를 한 것에 대해 _____을 지적하며 _____을 하고 있다.
- B: 잘한 점을 먼저 _____한 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_____하게 말하여 배려하고 있다.

④ 겸양¹⁾의 격률: 화자 자신에 대한 칭찬 _____ 비방 _____

<상황> 선생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상황

선생님: 발표 자료 정말 잘 만들었더구나. 그래서 내용도 더 잘 전달된 것 같아.

A: 당연하죠. 제가 뭐 못하는 거 보셨어요? 다음 발표 자료도 기대하세요.

선생님: 발표 자료 정말 잘 만들었더구나. 그래서 내용도 더 잘 전달된 것 같아.

B: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았는데, 친구들이 도와줘서 잘 만들 수 있었어요.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 A: 선생님의 칭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다음에도 잘 해낼 것이라고 _____을 드러내고 있다.
- B: 선생님의 칭찬에 자신을 _____며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 겸양의 격률은 _____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의 칭찬을 지나치게 부정하거나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적당한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⑥ 동의의 격률: 상대와 자신의 일치 _____ 차이 _____

<상황> 발표가 끝난 기념으로 뒤풀이를 하자는 상대의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

우림: 애들아, 우리 발표 끝난 기념으로 다 같이 피자 사 먹고 가자. 그동안 다들 힘들었잖아.

A: 난 싫어. 어제 발표 준비하느라 피곤한데, 피자는 무슨 피자. 집에 가서 쉬래.

우림: 애들아, 우리 발표 끝난 기념으로 다 같이 피자 사 먹고 가자. 그동안 다들 힘들었잖아.

B: 좋은 생각이야. 발표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았을 텐데. 다만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 내일 가는 건 어떨까?

- A: _____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다음 _____을 말하고 있다.
- B: 먼저 상대의 제안에 대해 _____을 표현하고 제안의 _____에 대해 언급하며 일체감을 높인 다음, 자신의 _____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_____’과 같은 완충적인 표현이나 ‘_____’와 같이 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하고 있다.

⇒ 이 격률이 상대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라는 것은 아니다. 만약 대화 초반부터 상대의 의견이 자신과 다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상대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화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의 의견 중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현하고 순차적으로 이견²⁾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겸양(謙讓):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함.

2) 이견(異見): 어떤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 또는 서로 다른 의견.